

# 『한국전기 100년, 학회 50년의 발전』 특집호를 마련하며

박 상 희

(연세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대** 한국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기 100년, 학회 50년의 발전”을 특집호로 이번 학회지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 전기공학 분야가 어느 분야보다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점등은 1890년 4월 10일 종로에 가로등을 점등한 것을 효시로 보고 1966년에 이 날을 「전기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여 오고 있으며, 전력사업을 비롯하여 전기공업의 눈부신 성장에 따라 전기 에너지 사업에서 자동화 사업, 정보화 사업에 걸쳐 전기공학은 오늘날 우리 산업사회의 기반기술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전기공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도 많은 향상을 가져왔고 배출되는 졸업생들의 전문분야 활동 역시 넓어져서, 특히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해방과 더불어 1947년 7월 9일에 창립하여 꾸준히 계속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국내에서 우수 학회의 하나로 확고히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기공학 분야의 활성화에 필요한 상호 정보교환의 가교 역할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분히 감당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간 본 학회는 학술단체로서 사명이요 역할이라 할 학회지 발간,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와 조사연구사업,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국제 학술교류 등 우리나라 전기계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은 오로지 선배임원 제위와 회원 여러분 및 특별 회원사의 협력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호는 한국전기 110년을 재조명하고, 학회 50년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고자 제한된 지면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전임 학회장을 역임하신 우형주 학회 원로님을 비롯하여 전기학회 50년사 편찬에 지난 일년간 많은 고생을 하신 집필위원 몇 분의 원고를 가지고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아울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곧 간행하게 될 전기학회 50년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기공학 분야의 보다 밝고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전기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